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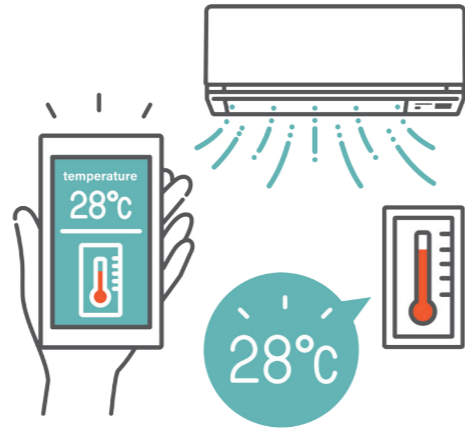
# 서울 YWCA

2023. 7/8 vol.625



# 힘들어도 지켜봐요!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 26-28°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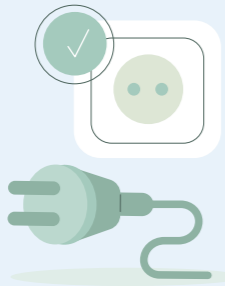
전기세 인상, 냉방비 폭탄 관련 기사가  
매일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온도 1°C를 낮추기 위해서는  
7%의 전력이 더 소모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를 지키며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요.



## 전기료 아끼는 꿀팁!

### 대기 전력 차단부터 시작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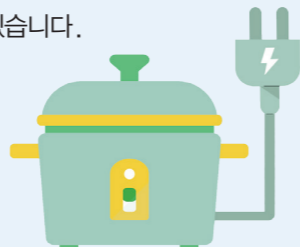
전자제품의 플러그를 꽂아놓으면  
사용하지 않아도 전력이 소모됩니다.  
대기전력으로 가정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무려 11%.  
불필요한 대기전력부터  
완벽히 차단해요.



## 여기에 하나 더!

### 전기밥솥 보온기능을 끄시다

전기밥솥 사용시간을  
하루 3시간만 줄이면  
전기 절약은 물론  
가구당 연간 141.9kg의  
탄소도 감축할 수 있습니다.



2023년  
7·8월호  
625호

서울  
YWCA

## 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 7월 공동기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가 당신이 만드신 질서에 복종하는데,  
유독 인간만 어긋장을 놓습니다. 인간이 먹고 싸고 입고 만들고 돌아다니는  
모든 행위가 지구를 아프게 하니 이 죄를 어찌할까요.  
분주한 삶을 일시 정지하고 자연의 품에서 쉬는 게 살림의 길입니다.  
부디 고장 난 우리를 조율해주세요. 아멘.

## 8월 공동기도

자연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새에게는 삼팔선이 없는데,  
사람이 만든 질서는 어찌 이리 융렬한지요. 차라리 나무가 되고 싶습니다.  
하늘을 향해 힘껏 팔을 뻗기만 해도 기도입니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  
얼굴을 붉히기만 해도 찬양입니다. 자신의 그늘을 모든 이에게 내어주기만 해도  
사랑입니다. 오늘은 나무와 춤을 추겠습니다. 아멘.

〈서울YWCA〉 2023년 7·8월호 통권 제625호 창간일 1966년 3월 1일  
등록번호 다-1554호 발행일 2023년 7월 1일 발행인 조연신 편집인 김양선  
편집위원장 전현숙 편집부위원장 전영지 편집위원 심주리 이재숙 인 미 최혜란 황정혜  
편집 민혜경 성지희 발행처 (사)서울YWCA 주소 04538 서울 중구 명동11길 20  
전화 02-3705-6000 전송 02-3705-6020 홈페이지 www.seoulywca.or.kr

- 2 **즐거운 불편운동**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 지키기
- 4 **시대를 살리는 말씀**  
"감히, 사랑!"
- 6 **특집**  
일본 오염수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책을 찾아서
- 8 **현장 속으로**  
2023 시민건강축제  
글로벌 시민 아카데미  
스포츠용 마스크 비교정보
- 14 **살롱한 교회 생활**  
성평등 교회운영 매뉴얼 3편
- 16 **영화와 삶**  
영화 <라벤더의 연인들>
- 18 **성평등 미디어 모니터링**  
숏폼 콘텐츠
- 20 **서울Y 소식**  
5·6월 뉴스  
7·8월 행사안내  
7·8월 캘린더
- 23 **알림터**
- 26 **Y샘터**  
우리는 Y-틴 출신 청년지도자입니다
- 28 **후원 소식**
- 32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성**  
조명숙, 기청공민학교 역대교장

www.instagram.com/seoulywca\_korea

www.facebook.com/seoulywca

검색창에 서울YWCA

blog.naver.com/ywcaseoul

검색창에 서울YWCA

# “감히, 사랑!”

생명과 평화의 신앙 순례길을

‘감히, 사랑!’이라는 이름의 생명수를 마시며 걸어가게 되면,  
평범한 우리의 일상에서 뜻밖의 기쁨과 재미있는 천국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창립 100주년을 넘어 새로운 한 세기를 힘차게 시작한 서울YWCA에 진심으로 축하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서울Y는 식민통치의 억압 속에서 다중적 고난을 당하는 이 땅의 여성들에게 빛과 생명의 통로가 되었던 초기부터 시작해서 지구촌 기후위기에 직면한 현재에 이르기까지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정의의 도구가 되어 왔습니다. YWCA를 포함한 기독교 여성들은 1984년 한국기독교 100주년을 기념하며 “이 민족의 기도를 들으소서”라는 기도문을 함께 작성한 일이 있습니다. 일부를 인용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있던 이 겨레에게 빛과 구원이 되신 하나님... (중략)  
100년의 역사를 계기로 하여 우리의 모든 잘못을 넘어서서  
당신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중략)

남비와 부패와 폭력이 난무하는 세계에서,  
남성들에 의해 계획되고 실행되고 조정되는 세계에서,  
이 땅의 드보라여, 일어날지어다! 깰지어다! 노래할지어다!  
이 땅의 어머니, 당신들이 일어서기까지,  
이 땅은 죽어 있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땅의 여성들이 일어서게 하소서.  
하나님, 이 땅의 여성들이 새로운 세계를 대망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여성들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이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선포하게 하소서.  
이 민족의 위기에서 이 땅에 용감한 드보라와 에스더가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 세계가 지나가고  
새로운 질서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모든 육체들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어  
이 땅의 여성들이 이 구원의 영을 선포하게 하소서... (중략)



배현주 목사  
전 부산장신대 신약학 교수  
전 WCC 중앙·실행 위원

믿음의 선배들이 작성하신 이 기도문은 이제 민족의 범위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구촌과 자연 세계를 위해 기후정의와 생태정의를 수립해야 하는 공동의 시대적 과제 앞에서 새로운 세계를 대망하는 우리에게 여전히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 사랑의 길로 다시 부르는 초청

기후위기의 도전은 기독교 정신의 뿌리와 기본으로 차분하게 되돌아가도록 부르는 초청입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외면해서 시장과 광고의 세계로 다 빼앗겨 버린 ‘사랑,’ 바로 그 심오한 길로 조용히 다시 부르는 초청입니다. 예수께서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마 22:37-40).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력은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연을 포함한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과 후손의 생명을 사랑하는 길로 되돌아가는 참회의 몸짓입니다. 일리아 텔리오는 「울트라 휴머니즘: 지구 공동체 의식을 갖는 인간으로」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임무는 신성한 사랑의 힘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 메시지의 핵심이다. 다른 세상을 원한다면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신성한 사랑의 힘은 어둠과 죽음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마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빛이신 예수를 따라가며 생명에 대한 사랑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합니다.

##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는 신비

지난 5월 16일 서울Y 강당에서는 서울Y를 포함한 24개 단체가 강남역 여성혐오범죄 7주기 여성주의 연합

예배를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예배의 주제는 ‘감히, 사랑!’이었습니다(롬 8:35-37). ‘상처입은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는 여성의 다중적 상처를 치유하며 담대하게 사랑을 선택하는 자유인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한국기독교는 세계 에큐메니칼 운동의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JPIC: Justice, Peace, and Integrity of Creation) 운동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랑은 JPIC를 위한 헌신의 가장 토대에 놓인 자비로운 열정입니다. 사랑이 없이 일하면 혁명을 지향하는 인간도 그저 반항아에 머물게 됩니다. 분노가 울화증으로 끓아서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는 신비를 터득해야 합니다. 간디는 “예수가 우리의 전체 삶을 사랑의 법칙에 따라 살도록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다면 그는 헛되이 살았고 헛되이 죽은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생명과 평화의 신앙 순례길을 ‘감히, 사랑!’이라는 이름의 생명수를 마시며 걸어가게 되면, 평범한 우리의 일상에서 뜻밖의 기쁨과 재미있는 천국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매튜 아놀드라는 영국의 평론가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순전한 마음으로 인류의 유익과 복지를 위해 일하는 날을 세상이 행여 볼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세상이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런 강력한 힘일 것이다.” YWCA 운동의 혈관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부드럽고도 강력한 여성의 힘이 면면히 흐르고 있습니다. 서울YWCA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21세기가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드보라와 에스더를 양육하고 배출하는 산실 역할을 계속 힘차게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Y

# 일본 오염수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책을 찾아서



**임준형**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국장

「체르노빌 생존 지침서(2020)」라는 책이 있다. 책의 저자인 케이트 브라운은 체르노빌 핵사고를 파헤치기 위해 핵사고가 일어난 지역 일대를 두루 다니며 자료를 수집하고, 사람들을 인터뷰하며 체르노빌 핵사고를 재구성한다.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빚어낸 엄청난 방사성 오염과 이후 바람을 타고 이동한 낙진과 비로 인한 오염물질의 이동이 있었다. 그뿐 아니라 핵사고의 여파가 오염물질이 묻은 양털을 따라, 오염된 지역에서 길러진 소의 고기를 이용한 소시지를 따라 이동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핵사고의 오염은 한곳에 머물러있지 않는다. 핵사고 시 방사성 물질은 액체, 기체, 고체 등 다양한 형태로 자연에 방출된다. 멈춰있을 것만 같은 고체 역시 분진의 형태로 곳곳에 흩어져 피해를 만든다.

## 방사선 피폭 허용치를 올린 일본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당시 사망자는 1만 5천9백

명이고, 실종된 사람은 2천523명이다. 하지만 이 중 핵사고로 인해 죽은 사람은 없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주장이다. 물론 이를 믿는 사람은 없다. 피난 간 사람들 중 지병이 악화되어 숨진 사람도 3천792명에 이른다고 한다. 단순 질병인지 아니면 방사선 피폭에 의한 죽음인지에 대한 부분은 알 길이 없다. 일본 정부가 나서서 인과를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일본 정부는 자국민들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국가적 재난을 덮고 해결하는 일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지금도 여전히 후쿠시마 핵 사고지역 인근은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의 방사선량이 측정된다. 오염된 표층의 토양을 걷어냈지만, 비만 오면 산 위의 방사성 물질이 빗물을 타고 다시 토양을 오염시킨다. 일본 정부는 이곳으로 사람들을 복귀시키기 위해 일명 '기준치' 즉 지역 주민의 방사선 피폭 허용치를 올렸다. 실상 얼마나 많은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고, 얼마

나 강한 방사선을 쬐어야 질병이 발생하는지는 정확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강한 방사선에 노출이 되면 순식간에 심각한 피폭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여 죽음에 이른다는 사실은 모든 학자들이 인정하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피폭, 특히나 내부피폭(호흡 또는 섭취를 통해 인체 내부에서 발생한 피폭)으로 인한 건강 영향은 여전히 연구주제이니 말이다.

## 플루토늄, 삼중수소의 위험성

일본이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기로 한 것 역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사고를 덮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알프스(ALPS)라고 부르는 오염수 정수처리 시설은 오염수에 있는 모든 핵종을 처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미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인 서균열 박사는 오염수에 치명적인 핵종인 플루토늄이 남아 있어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심지어 만약 일본 정부의 주장처럼 대부분의 핵종을 처리할 수 있다 해도 삼중수소는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 물과 같이 취급되는 성질로 인해 인체에 들어와서 세포와 결합하거나 축적될 가능성이 있다.

쉽게 말하면 빠져나가지 않고 몸 안에서 계속 피폭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이다. 방사성 물질이 발생시키는 방사선 중 전리 방사선은 세포 내부의 DNA에 변형이나 파괴를 일으킨다. 조직 괴사나 암 발생 확률을 높인다는 말이다. 그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한규 원자력연구원장 역시 국회에서 일본이 '처리수'라고 주장하는 오염수는 현재 상태로 마실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 방사성 물질의 '희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물론 방사성 물질의 단위당 농도는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상 투기되는 방사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물에 섞는다고 해서 방사성 물질이 다른 물질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저 바다에 방류되는 물의 양이 늘어날 뿐이다. 그 방사성 물질은 해류를 타고 우리의 바다로, 밥상으로 돌아온다. 해초류와 어패류를 비롯한 바다의 부산물들이 오염물질에 영향을 받거나 오염물질을 축적하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 결과 먹이사슬의 가장 정점에 있는 인간에게 당연히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기로 한 것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사고를 덮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방사성 물질은 해류를 타고 우리의 바다로 밥상으로 돌아온다. 먹이사슬의 가장 정점에 있는 인간에게 당연히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을 염려하는 것은 전혀 비과학적이지 않고, 이른바 '괴담'에 선동당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검증되지 않고, 그리고 검증 책임을 다하지도 않은 일본 정부의 주장이 비과학적이고, 비민주적이다. 그리고 그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한국 정부와 여당 역시 민주정부로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을 염려하는 것은 전혀 비과학적이지 않고, 이른바 '괴담'에 선동당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검증되지 않고, 그리고 검증 책임을 다하지도 않은 일본 정부의 주장이 비과학적이고, 비민주적이다. 그리고 그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한국 정부와 여당 역시 민주정부로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오염수 고체화시키거나 큰 탱크에 보관하면 되는 일

일본 정부든 한국 정부든 결국 이 문제는 함께 사는 세상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인간안보의 문제이고, 세계시민의 기본적

인권과 생명권을 지키는 지구적 민주주의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게다가 심지어 가능한 대안도 존재한다. 시멘트와 모래를 넣고 고체화시키는 방법이나, 큰 탱크를 지어 오래 보관하는 방법 말이다.

바다가 아닌 육지에 격리시켜 보관할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저비용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만 먹지 않으면 된다. 우리는 생명을 위해 돈을 쓰고, 안전을 위해 돈을 투자한다는 당연한 사실, 그 관계가 역전될 수 없다는 그 엄연하고 마땅한 사실을 바탕으로 두고, 이 문제가 정의로운 해결책을 찾아가게 되기를 바란다. **Y**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전국YWCA 긴급행동

# 2023 시민걷기축제 건강한 여성이 세상을 바꿉니다

서울Y는 5월 20일 '건강한 여성이 세상을 바꿉니다'라는 주제로 2023 시민걷기축제를 남산공원에서 개최했다. 올해 걷기축제는 팬데믹 위기를 넘어 4년 만에 현장에서 열렸다. 다 함께 힌티와 청바지를 맞춰 입고 파란 기념 손수건을 목에 걸친 회원과 시민들은 남산순환로를 따라 걸으며 신록을 만끽했다. 걷기 마당 외에도 여러 체험 부스 체험과 기념품 증정, 행운권 추첨 등을 즐길 수 있는 어울림마당이 펼쳐져 흥을 더했다. 2000년에 시작되어 해마다 새봄이면 찾아오는 서울Y 걷기축제. 내년에는 보다 많은 회원과 시민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정신여고 워십팀의 신나는 공연



개회선언하는 이지선 걷기대회준비위원장



제로 웨이스트 부스 환경퀴즈 타임



안 쓰는 장바구니를 가져오시면  
친환경 주방비누를 드려요~  
기증해주신 장바구니는  
전국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재사용됩니다



걷는 길에 심심할까봐 추억의 신발 던지기 한 판!



삼삼오오 손을 잡고 웃으며 걷다 보니  
어느새 완주반환점!



코스 곳곳에  
마련된  
이벤트존마다  
즐거움이 가득~



행운권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 글로벌 시민 아카데미 기후·전쟁·젠더·인종에 관한 고찰

서울Y는 4월 18일부터 5월 30일까지 총 6회에 걸쳐 '글로벌 시민 아카데미'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기후위기', '전쟁', '인종주의', '젠더 이슈'에 관한 6명의 전문가 강의로 구성된 이번 아카데미는, 국제 이슈 현황을 알리고 그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카데미에서 논의된 내용을 우리 삶에서 고민하고, 실천해 보는 도전은 아카데미를 이어나가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정리\_이자는 국제운동팀 간사



## [3강] 젠더 이란 여성에게 히잡을 쓰거나, 벗을 자유를!

구기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교수



이슬람 여성을 억압하는 상징으로 여겨지는 '히잡'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성이 히잡을 쓰고, 벗고를 결정할 수 있는 여성의 주체적인 힘"이다. 이란은 종교 율법을 앞세우며 여성을 억압하고, 사회를 통제하려 한다. 하지만 이란 여성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히잡 강제 반대 운동, SNS 해시태그 운동, 집단 시위와 같은 행동을 멈추지 않는다. 이란인들의 자유를 향한 연대와 행동은 이란 사회의 변화와 진보를 일궈내고 있다.

## [4강] 젠더 일터에서 여성이 마주한 모순 직시하기

캐런 메싱 퀘벡대 생물학과 교수



우리의 일터가 남성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음을 인정할 때, 여성이 일터에서 받는 차별과 이로 인한 연쇄적인 영향들을 이해할 수 있다. 남성의 신체 사이즈를 표준으로 만들어진 작업 도구, 작업 동선, 업무 배치는 여성의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게 만들거나 다치게 만든다. 여성의 작업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그렇기에 수치심을 느낄 필요가 없다. 여성은 자신에게 맞는 작업 도구, 작업 환경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여성의 연대와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다.

## [1강] 기후 자연이 보내는 메시지에 응답하기

박일준 감신대 종교철학과 외래교수



우리 인간 존재는 사물, 자연과 같은 비인간 존재들과 공존하며 상호 관계 속에 살아간다. 그렇기에 우리는 비인간 존재들에게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인간 존재는 그들만의 힘을 발휘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벌어지는 자연재해는 자연이 보내는 정치적이고 강력한 메시지다. 그 메시지에 응답하는 방법은 스마트폰 오래 쓰기, 컴퓨터 버리지 않고 재활용하기와 같은 작은 실천들, 정치적인 목소리 내기에서 출발한다.

## [2강] 인종 멸칭 속에 담긴 한국식 인종차별의 의미

정희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식 인종차별은 인종적으로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을 멸시하고, 반대로 인종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을 선망한다. 이러한 생각은 피부색, 민족, 경제력, 종교에 따른 차별적 호칭인 '멸칭'으로 나타난다. '흑형'은 개인을 집단으로 뭉뚱그린다. '똥남아'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담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을 한국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로 바라볼 때, 우리 사회는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 열린 사회로 다가갈 수 있다.

## [5강] 기후 절망에 굴복 아닌, 새로운 애도 방법 찾기

대니얼 세럴 기후변화 활동가



지구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 북극이 녹아내리고, 세계 곳곳에서 가뭄과 산불 등 각종 자연재해가 이어진다. 거대한 재앙 앞에서 인간은 절망적인 무력감과 비통함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회복력의 원천으로써 새로운 종류의 '애도'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그 애도는 기후위기라는 사실을 외부의 소음으로 여기는 게 아닌 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하고, 엄격하게 행동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 [6강] 전쟁 우리 손으로 전쟁을 끝내는 방법

김영미 분쟁지역 전문 PD



2022년 시작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끝은 쉽사리 보이지 않는다. 전쟁은 하나의 거대한 자본시장이기 때문이다. 그 현장에서 폭력과 공포로 고통받는 존재는 민간인이며, 그들은 피해 사실을 말하기조차 어렵다. 다음 타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있으며, 이를 취재해 세상에 알리는 언론인들이 존재한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은 지속적으로 전쟁에 관심을 가지고, 전쟁을 부추길 수 있는 자본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다.

## 10개 브랜드 스포츠용 마스크 비교정보

# 모두 유해물질 안전기준에는 적합하나, 절반 이상 기본 품질 떨어져

스포츠용 마스크는 바이러스 차단 용도는 아니나 보건용 마스크와 비교해 숨쉬기 편하고 항균성, 속건성 등 여러 기능을 광고하고 있어 스포츠 활동 시 마스크 착용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서울Y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를 돕고자 스포츠용 마스크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을 비교·분석했다.

### 시험대상 제품

정기적으로 스포츠 마스크 착용 및 구입 경험자 20세-59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22년 8월)와 시장현황을 바탕으로 10개 브랜드 10개 제품을 선정

브랜드	제품명(품번)
감자마스크	감자 항균 스포츠마스크TM
나루마스크	F·U+ copper
노스페이스	프로실드마스크 (NA5AM60A)
룰루레몬	더블 스트랩 페이스 마스크 (LU9AOBS)
르꼬끄 스포르티브	QN223AA042
숨마스크	W341
안다르	서스테이너블 올인원 마스크 (ELRMK-01BLK)
언더아머	스포츠마스크 페더웨이트 (1372228)
젝시믹스	에어로 마스크
탑텐	에어 마스크 (MSC5AZ3011B)

### 결과

#### ● 기본 품질(염색성·내세탁성·내구성)이 떨어지는 제품 다수

6개 제품(브랜드명만 표기, 제품명은 시험대상표 참조)\*이 외부요인(손세탁·마찰·물)에 이염·변색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나루마스크는 10회 세탁 후 물빠짐이 발생했으며 감자마스크는 원단 강도가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 \* 손세탁견뢰도 미흡(5개) 노스페이스, 숨마스크, 나루마스크, 르꼬끄 스포르티브, 안다르
- \* 마찰견뢰도 미흡(3개) 안다르, 언더아머, 숨마스크
- \* 물견뢰도 미흡(2개) 르꼬끄 스포르티브, 나루마스크

#### ● 모두 유해물질 안전기준에 적합

##### 1개 제품에서 환경오염물질(PFOA) 검출

수소이온농도(pH), 폼알데하이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제품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젝시믹스 에어로 마스크에서 PFOA(과불화옥탄산)\*가 10.0 $\mu$ g/m<sup>2</sup> 검출되어, 의류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기준 검토가 요구된다.

- \* 내분비 교란, 생식기능에 유해한 과불소화합물로,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에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섬유제품 관련 법정 기준이 없으며 아웃도어 브랜드만 자체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유럽에서는 해당 물질 검출 시 유통이 불가하다.



#### ● 기능성(항균·속건·접촉냉감) 표시에 대한 검증·관리 필요

항균성이 표기된 3개 제품\*은 세탁 전 항균성이 99.9%에 미치지 못했고, 10회 세탁\*\* 후에는 4개\*\*\* 제품이 폐렴균에 대한 항균성이 사라졌다. 특히 서스테이너블 올인원 마스크는 '20회 세탁해도 항균성 유지'된다고 강조했으나 10회 세탁 후 항균성이 사라졌다.

- \* 르꼬끄 스포르티브, 안다르, 젝시믹스
- \*\*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서울Y, 2022) 사용 기간, 세탁 빈도를 고려해 세탁 10회 후 항균성 측정
- \*\*\* 숨마스크 추가됨

속건성도 광고 표시 제품(룰루레몬)이 광고하지 않은 제품보다도 느렸으며, 오히려 광고가 없는 제품(언더아머)이 가장 빠르게 건조되기도 했다. 접촉냉감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쿨링' 기능을 표시한 감자마스크는 기준치를 넘지 못했다.

#### ● 개정된 안전관리기준을 인지하지 못해 품질표시 부적합 제품 다수

관련 기준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표시정보 누락, 오기재, 혼용률 표기 부적합 제품이 9개로 대부분을 차지해, 관련 업계에 정확한 기준 지침을 전달·계도하는 한편 지속적인 시장 감시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Y** 정리 김진아 생명운동팀 간사

### 스포츠용 마스크 선택·사용 요령

- ☑ 스포츠용 마스크와 보건용(KF) 마스크를 구분하자! 별도의 필터가 없다면 스포츠용 마스크는 비말 또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없는 일반 마스크로, 보건용 마스크와는 다르다
- ☑ 세탁 후 기능성이 떨어질 수 있어 세탁 표시에 맞게 세탁하자! 기능성 표시·광고에 세탁 후 성능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기능성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 세탁 표시 방법에 맞게 세탁한다
- ☑ 유해화학물질 노출 최소화를 위해 꼼꼼히 확인하자! 방수·발수 기능이 있는 제품의 경우 '과불소화합물 프리', 'PFOA FREE' 표시나 친환경 발수제를 사용한 제품인지 확인해 인체에 노출을 최소화한다.

성평등 교회운영 매뉴얼

# 살로운 교회 생활

살로운 교회 생활이란 '성평등한 교회', '차별 없는 안전한 교회' 안에서 사는 삶을 말한다. 성평등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로서 차이와 개성을 존중받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성원 모두가 힘써야 하지만, 특히 목회자에게는 성평등한 관점으로 교회와 성도를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다. 서울Y는 성평등 교회운영 매뉴얼 <살로운 교회 생활>을 제작했다. 교회 구성원이 소외와 차별로 고통받지 않고 '안전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교회 운영에 참조할 수 있는 실천방법을 담았다.

## 평등한 교육편

목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십 년 넘게 아동부 교사로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 주일에 처음으로 “선생님! 하나님은 남자에요?”라는 질문을 들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와서는 그렇게 묻길래 “응, 그럼. 하나님은 남자지! 주기도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라고 급하게 답을 했어요. 그런데 뭔가 계속 찝찝하고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별이 있나?’, ‘하나님은 신인데 인간인 우리처럼 성별이 존재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남자라고 들었던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요.



아동부 교사는 왜 하나님을 남성이라고 했을까요?

성경에 나타난 여성적 하나님의 이미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평등 관점의 교육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 성평등 교육을 위해 약속해요!

### 1 성평등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요

교회의 조직도를 그려보면 어떠한 모습일까요? 맨 위에 남성 담임 목사가 있고, 그 아래 남성 장로가 있고, 그 아래 남성 부서장이 수직적으로 나열됩니다. 예배의 설교나 대표 기도는 누가 하나요? 강단 위에 어두운색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맨 남성 목사와 남성 장로가 서 있습니다. 설교와 교육교재에서 다루지는 성경 인물은 누구인가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 등 대부분이 남성입니다. 이렇게 남성을 우위에 두고 권위와 힘을 갖게 하는 환경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레 차별을 답습합니다. 목회자는 교회의 안과 밖을 좀 더 예민하게 살피고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교회가 인간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성평등을 먼저 배우고 익히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세요.

### 2 성평등한 예배를 드려요

예배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의 장입니다. 성도들은 매주일 반복되는 예배를 통해 기독교인의 삶의 가치와 방식을 습득하고 다짐합니다. 오늘의 한국교회에서 성도들은 어떠한 신앙을 갖게 될까요? 높은 강대상 위에 홀로 서 발화의 기회를 독점한 남성 목회자와 그 아래 줄 맞춰 놓인 장의자에 수동적인 참여자로 조용히 왔다가 사라지는 성도들. 주체적인 예배자를 찾을 수 없고, 주변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예배는 남성 중심적 문화와 구조를 더욱 견고히 하며 교회와 세상 사이에 단단한 벽을 세웁니다. 성평등한 예배는 모든 예배자가 주체적인 참여자가 되고,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배제되지 않으며 모두의 이야기가 들려지는 예배입니다. 교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을 배우고 실천하는 성평등한 예배를 경험하게 해 주세요.

### 3 교회에서 정기적인 성평등 교육을 실시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남자는 여자의 머리이다’ 등의 성경 구절들은 교회의 성차별을 정당화하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이는 성경의 시대와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해석되어 ‘남자는 여자보다 우월한 존재이며,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성별 위계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내면화한 교회 구성원들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남성을 보조하는 역할에 머무는 것을 교회의 질서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경해석과 교육은 수정되어야 하며, 우리의 의식과 삶도 변화해야 합니다. ‘성평등 교육’은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 서로를 존중하며 진정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도와주는 교육입니다. 교회에서 정기적인 성평등 교육을 해서 성도의 삶과 교회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해 주세요. ♪

- ①  
평등한 설교편
- ②  
평등한 사역편
- ③  
평등한 교육편
- ④  
평등한 언어편
- ⑤  
평등한 관계편



“책 속에 길이 있다”지만 요즘같은 영상 시대에는 영화 속에도 길이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화관에서 상영할 때를 놓친 영화를 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OTT(Over the top media service)시대를 맞아 아무 때나 어디서나 원하는 영화를 찾아 보는 일이 수월해졌다.



이경순  
명예위원  
전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 늦게 찾아와 더 애뜻한 황혼의 사랑 영화 <라벤더의 연인들>



라벤더의 연인들  
Ladies in Lavender 2004

감독 찰스 댄스  
출연 주디 덴치(우술라)  
매기 스미스(자넷)  
다니엘 브뤼(안드레아)  
나타샤 맥켈혼(올가 다닐로프)  
장르 드라마(104분)  
제작국 영국  
등급 전체 관람가  
개봉 2008. 7. 3

라벤더는 꽃 이름이면서 보라색을 뜻하기도 한다. 우아하고 고상한 느낌을 주는 보라색은 젊은 여성 보다는 중년을 지나 노년으로 향해 가는 초로(初老)의 여인에게 잘 어울리는 빛깔이기도 하다. 가슴 뛰는 일이라고는 없는 단조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 초로의 여인 우술라에게 너무 늦게 찾아온 첫사랑의 감정은 마치 보라색 라벤더 꽃빛깔처럼 아련하고 아름답다.

그래서 [Ladies in Lavender]라는 원제와는 달리, 관객들을 끌기 위해 <라벤더의 연인들>이라고 엉뚱하게 ‘연인’을 내세운 번역 제목 보다는 원제대로 [라벤더의 여인들]이라고 했으면 더 좋았겠다.

**줄거리** 영국 콘월의 바닷가 작은 마을에 사는 초로의 두 자매 자넷과 우술라는 조용하고 평화롭게 황혼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거센 폭풍이 지나간 어느 날, 두 자매는 바닷가에서 조난 당해 정신을 잃은 젊은 청년을 발견하고 정성스럽게 그를 간호한다. 기억을 잃고 영어도 못 하는 청년을 돌보면서 단조로웠던 두 자매의 일상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돈다. 특히 연애 경험이 전혀 없는 동생 우술라는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첫사랑에 빠진 소녀처럼 설렌다. 그러나 안드레아가 조금씩 기억을 회복하면서 그녀들의 행복도 흔들리기 시작한다. 마을에 온 젊은 여성 올가가 안드레아가 폴란드 출신의 유명 바이올리니스트인 줄 알아보게 되고, 안드레아는 그녀를 따라 런던으로 떠난다. 갑작스러운 상실감으로 가슴 아프고 허전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안드레아의 연주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연주회장을 찾아가 두 자매는 안드레아를 만나 짧은 인사를 나누고 담담하게 연주를 듣는다.



안드레아의 연주를 들으며 행복해하는 두 자매(왼쪽이 우술라)



안드레아의 연주회에 참석한 두 자매



두 자매를 위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안드레아

뒤늦게 찾아온 낯선 감정에 첫사랑에 빠진 사춘기 소녀처럼 어쩔 줄 몰라하는 우술라 역을 완벽하게 해낸 주디 덴치는 첩보 영화 007 시리즈에서 보스M으로 널리 알려졌고 영화 [섹스피어 인 러브]에서 엘리자베스1세 여왕 역으로 인상적인 연기를 펼친 영국의 국민배우이다.

주디 덴치에게 1988년 귀부인(Dame) 작위를 내린 고 엘리자베스2세 여왕은 이 영화 시사회에 참석해 찰리 댄스 감독과 배우 주디 덴치, 매기 스미스, 다니엘 브뤼 등 배우들과 인사를 나누며 이 영화에 대한 깊은 만족과 각별한 공감을 표현했다.

영화 속에서 안드레아가 연주하는 OST는 수려하고 청아한 음색으로 호평 받는 유명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 실제 연주를 맡아 주인공들의 설레는 마음과 애잔한 감정을 관객들에게 전달한다.

동양에서는 신로심불로(身老心不老)요, 서양에서는 “심장이 뛰는 한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하듯 비록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사랑이라 해도 너무 늦은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



시사회에서 출연배우들과 인사를 나누는 엘리자베스 여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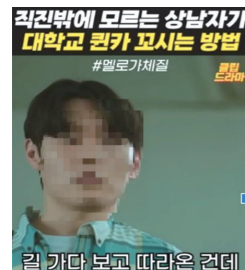
**‘더 짧고, 더 자극적이게!’**

## 자극과 ‘프레이밍’을 이용한 숏폼 콘텐츠의 성차별 재생산

최근 영상 플랫폼 내의 트렌드는 짧은 영상으로 이루어진, 모바일 기기로 접하기 쉬운 1분 이하의 ‘숏폼’ 영상이다. 주로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틱톡 등으로 대표되는 숏폼의 인기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제는 10명 중 7명은 숏폼 콘텐츠를 시청한 경험이 있다.<sup>1)</sup> 하지만 짧은 시간 내에 강렬한 인상과 재미를 남겨야 하는 특성상, 성차별적인 고정관념과 여성 혐오가 더욱 집약적으로 담기게 되거나 재생산되는 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Y는 숏폼 콘텐츠 중 가장 시청 비율이 높은 유튜브 ‘쇼츠’ 영상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 제작자의 의도대로 틀을 짜는 ‘프레이밍’

숏폼의 특징 중 하나는 자막과 상단의 제목, 영상 제목 등을 이용한 ‘프레이밍’이다. 해당 콘텐츠가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으로 읽히고 소비되게끔 ‘틀을 짜는 것’을 ‘프레이밍’이라고 하는데, 짧은 시간 안에 영상의 메시지를 각인시켜야 하는 숏폼 콘텐츠의 특성상 자막 프레이밍을 통한 성차별이 더욱 두드러졌다.



숏폼 콘텐츠 성차별적 사례  
(출처 : 유튜브 채널 '클럽무비')

특히 영상 상단의 자막을 통해 노골적으로 ‘여적여’, ‘상남자’, ‘여우’와 같은 성차별적 표현들을 사용함으로써 해당 콘텐츠가 여성 혐오적 시각으로 소비되게끔 유도하고, 기존의 성차별적 관행을 확대·재생산하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또한 영화와 드라마의 일부 장면을 재가공한 영상의 경우에는 어떤 자막과 제목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원본의 의미와 관계없이 성차별적인 콘텐츠로 재탄생하거나, 원본의 성차별적 요소를 정당화시키기도 했다.

### 심각한 수준의 ‘여성의 성적 대상화’

성차별적 사례 중, 성적 대상화에 해당하는 사례는 전체의 약 42.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웹드라마 재가공 숏폼의 경우에는 자극적 제목과 자막을 활용해 성적 대상화된 여성의 몸을 부각함으로써, 높은 조회수를 유도하려는 영상이 많았다. 또한 사용자의 취향을 파악하여 영상을 추천해주는 알고리즘 시스템으로 인해 한 번 이러한 콘텐츠를 시청한 계정으로서는 더욱 반복적으로 비슷한 류의 콘텐츠들이 제공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숏폼 콘텐츠 성적 대상화 사례  
(출처 : 유튜브채널 '하이틴에이저')

### 숏폼이 ‘성차별 확성기’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숏폼에서는 다른 미디어 매체보다 더욱 노골적인 성별 고정관념과 성적 대상화, 여성혐오가 담긴 콘텐츠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성별 고정관념에 적극적으로 기대어 조회 수와 관심을 유도하는 모습은 숏폼 콘텐츠 내의 성차별 재생산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드라마와 예능, 영화와 같은 전통 미디어뿐만 아니라 웹예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유행하는 밈(meme) 등이 숏폼 영상들로 가공되며 더욱 그 성차별적 요소들이 부각되고 있다. 더 이상 숏폼이 미디어의 ‘성차별 확성기’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사회적 차원의 비판과 규제를 통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Y 정리 조혜원 여성운동팀 활동가

모니터링 대상 2023년 4-5월 기준 유튜브 내 인기 쇼츠 영상 1,600개  
(유튜브 채널 가치평가 플랫폼 (주)인플스톡 데이터 참고)  
모니터링 기간 2023년 5월 3일 - 5월 17일

1) <소셜미디어 검색포털 트렌드 리포트 2023>, 오픈서베이

# IOPE



## 바르는 입체각 리프팅

# NEW PDRN X CAFFEINE SHOT

##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자회견 가사근로자법 활성화 대책 수립과 ILO가사노동자협약 비준 촉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근로자법 활성화 대책 마련과 ILO가사노동자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서울Y는 6월 16일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아 한국YWCA연합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이하 가사·돌봄유니온), 이수진·강은미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근로자법 활성화 대책 마련과 국제노동기구(ILO) 가사노동자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6월 16일은 2011년 국제노동기구(ILO)가 가사노동자협약(189호)을 채택한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되었고 지난해 6월 16일자로 시행되었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하고, 인증기관에 고용된 가사노동자에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하지만, 현재 인증기관은 40개이고 약 400명 고용에 불과해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이 여전히 법외지대에 머물러 있다. 인증기관과 소속 노동자가 늘어나지 않고 있어 가사서비스 인증 제공기관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가사근로자법 인증기관 활성화를 위해 ▲ 가사서비스지원제도 전면 도입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가사서비스사업에 가사근로자법 적용 ▲ 중고령 가사노동자를 위한 건강보험료와 실업급여 지원 ▲ 인증기관에 고용장려금 지원 ▲ 가사서비스 전문가격증제도 도입 ▲ 인증기관에 한시적 인건비 혹은 인력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어 가사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 저리의 생활자금 대출 등 근로복지 지원 ▲ 가사노동자를 위한 휴식제도 도입 ▲ 표준요금제 및 월급제 도입 ▲ 가사노동자 등록제 도입 ▲ ILO가사노동자협약(C189) 비준을 요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앞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시행 1주년 기념 간담회'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개최하고 가사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방안과 가사근로자법 인증기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시행 1주년 기념 간담회

### 노원

#### '찾아가는 좋은 조직문화'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는 5월 11일부터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좋은 조직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좋은 조직문화를 희망하고, 여성 취업자가 있는 5인 이상의 기업체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맞춤형 찾아가는 서비스로 진행된다. 직장 내 스트레스 해소와 업무 효율성 증대, 재직자들의 유연한 조직문화 확립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영등포

#### 2023 취업박람회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는 5월 24일 '영등포구와 함께하는 2023년 취업박람회'를 영등포아트홀에서 열었다. 구직 희망자 595명과 구인 업체 26곳이 참여했으며, 1:1 면접 진행과 함께 이력서용 사진 촬영, AI 면접 체험 등 이벤트 부스를 운영해 구직 활동을 지원했다.



### 봉천

#### '같이 놀 장(場)'

봉천종합사회복지관은 어린이날을 맞이해 5월 5일 '같이 놀 장(場)' 프로그램을 관악구 아동·청소년과 지역주민 430명과 함께했다. 페이스페인팅, 네일아트, 부채만들기, 스포츠스타킹, 보드게임 등 19개의 부스를 운영하며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대학생·직장인 자원봉사자 66명의 협력으로 보다 질서 있고 안전한 행사가 되었다. 앞으로도 복지관은 관내 아이들의 즐겁고 행복한 성장을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 누리봄

#### 텃밭 가꾸기

누리봄은 올 4월부터 관악구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전시관 앞 텃밭에서 <초록빛 텃밭을 가꾸 '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누리봄 가족들이 상추와 썩갓, 치커리 등 각종 채소를 직접 심고 가꾸고 수확하며 생명의 소중함과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다.



### 강남

#### 청소년이 만드는 학교폭력예방교육

강남청소년수련관 학교폭력예방센터는 6월 5일부터 30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청소년이 만드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자유학기제와 연계해 구룡중, 봉은중 1학년 231명의 학생과 함께했다. 자아인식, 팀빌딩과 토론, 모둠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 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이 원하는 주제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해보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을 통해 강화된 학교폭력 예방 역량을 바탕으로 청소년 스스로가 학교폭력 예방 문화를 확산해나가기 기대한다.



### 장바구니 모아모아

잘 쓰지 않는 장바구니나 에코백이 혹시 집에 쌓여 있지는 않나요?  
명동 나들이길에 서울Y 사무실에 들려주세요.  
사용감이 많이 없는 깨끗한 장바구니를 기증해 주시면 친환경 주방 비누를 드립니다.

\* 기증해주신 장바구니는 전국 로컬푸드직매장에서 비닐봉지 대신 사용됩니다



• 문의 02-3705-6065

### 하나금융나눔재단과 함께하는 '북멘토링 프로젝트'의 북멘토가 되어주세요

**북멘토링 활동은?**  
소년원 여성청소년 친구들과 1:1 멘토 멘티가 되어 함께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편지쓰기 활동입니다

- \* 매칭된 청소년의 퇴원 전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최소 24개월)
  - \* 도서구입비 후원으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 문의 02-3705-6034

### 교육 프로그램 안내

노원

• 문의 02-951-0187

과정명	교육일정
한국사 강사양성과정	7월 5일(수)-9월 6일(수) (수, 10:00-13:00)
트렌드 헤어 커트	7월 14일(금)-8월 18일(금) (금, 19:00-22:00)
[내일배움] 카페브런치 실무과정	7월 12일(수)-9월 21일(목) (수·목, 14:00~18:00)
[내일배움] 문서작성과 ITQ자격증	7월 14일(금)-9월 18일(월) (월·수·금, 14:00-18:00)
[내일배움] 해외쇼핑몰 아마존 입점실무	8월 17일(목)-9월 14일(목) (화·목, 9:30-13:30)

영등포

• 문의 02-858-4514

과정명	교육일정
사회복지 행정사무원 양성 (장기요양기관 실무)	8월 2일(수)-9월 27일(수) (월-금) 9:00-13:00 * 직종설명회 7월 12일(수) 11:00 *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우선 선발 * 실제 운전가능자, 컴퓨터 활용 가능자 우대
보험총무사무원	8월 23일(수)-11월 2일(목) (월-금) 14:00-18:00 * 직종설명회 7월 27일(목) 14:00 * 만 30세~49세 우대

### 회원 소식

**김소망** 강남청소년수련관 팀장  
6월 10일(토) 낮 12시 30분  
네스트웨딩홀(충북 충주) 시에나홀에서 결혼

### 생활돌보미 교육생 모집

서울돌봄과살림은 신입 돌보미회원을 모집합니다.  
교육 이수 후 구비서류를 제출한 회원은 취업까지 연계가 가능합니다.

직종	대상	교육일	교육비
가사돌보미	65세 이하 여성	7월 6일(금) 10:00	3만원
아기돌보미	63세 이하 여성		
세이프맘			
간병사	65세 이하 여성 관련자격증 소지자 우대	7월 13일(목) 10:30	4만원

- 신청 교육일 3일 전까지 전화신청
- 문의 02-3705-6013~4 / 02-3705-6071~2

### 스포츠센터 '기구(리포머) 필라테스' 강습

필라테스는 조셉 필라테스가 창시한 프로그램으로 바른 자세로의 교정과 재활 등을 목적으로 신체 근력과 유연성을 발달시키는 운동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Y 홈페이지 스포츠센터 게시판에서 확인)

- 강습 안내 주 2회(월·수, 화·목) : 154,000원  
주 1회(금) : 80,000원
- 문의 02-3705-6030

### 2023 시민견기축제

### 후원 감사합니다

- |         |        |
|---------|--------|
| 김성일     | 광동제약   |
| 김순임     | 농심     |
| 김양선     | 동서식품   |
| 배은경     | 롯데웰푸드  |
| 이경연     | 매일유업   |
| 이순우     | 삼성전자   |
| 이유림     | 오뚜기    |
| 이은령     | 위니아    |
| 이지선     | 유한킴벌리  |
| 전현숙     | 주영이앤씨  |
| 조연신     | 홍천섬유   |
| 최한나     | CJ제일제당 |
| 한혜영     | LG생활건강 |
| 황성연     | LG전자   |
| 여성참여위원회 |        |
| 평생체육위원회 |        |

# CALENDAR

2023 **7**

월	화	수	목	금	토
					1 · 그린Y 정기모임(22일) 13:00 · 씽크머니 정기모임(15·29일) 13:00
3	4 위원회 재정 11:00	5	6 등분회원 신입교육 가사돌보미·아기돌보미 10:00	7	8 · 누리봄 여름캠프 9:00 · 강남 청소년운영위원회(22일) 10:00 · 2023 Y-틴, 대학·청년YWCA 연합인준식 13:00
10 · 역대이사 모임 11:00	11 이사회 11:00 · 정책워크숍 13:00	12	13 위원회 여성참여팀 11:00 등분회원 신입교육 간병사 10:30	14 ·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개관 30주년 기념예배 14:00	15 위원회 국제협력팀 10:30 · 평화통일기획단 피스톡톡(29일) 11:00 · 은하수, 울력·온새미로 선배와의 만남 13:00
17 위원회 평생체육팀 11:00	18 위원회 누리봄 10:00 노원Y 11:00 소비자환경팀 11:00 청소년팀 11:00 영등포Y 14:00 · 강남 학교폭력예방센터 강사 정기회의 15:00 · 성평등 미디어 모니터단 정기모임 19:00	19 위원회 회원활동팀 11:00	20 위원회 시설운영사업팀 11:00 여성능력개발팀 11:00	21 위원회 강남Y 11:00	22 · 키다리학교 정기모임 13:00
24 위원회 봉천Y 11:00	25 월례회·재교육 요양보호사 16:00	26	27	28	29
31					

# CALENDAR

2023 **8**

월	화	수	목	금	토
					1 · 성평등 미디어 모니터단 정기모임 19:00
		2	3	4	5 · 강남 청소년운영위원회(12·26일) 10:00 · 평화통일기획단 피스톡톡(19일) 11:00 · 씽크머니 정기모임(19일) 13:00
7	8	9	10	11	12 · 그린Y 정기모임(26일) 13:00
14	15 광복절 · 누리봄 문화체험 10:00 · Y-틴 전국회원대회(~16일) 13:00	16	17	18	19 · 온새미로 정기모임 13:00 · 울력, 씽크머니 1:1 청소년 경제금융 멘토링 '씽크커뮤니티' 13:00
21	22 위원회 홍보출판팀 11:00 월례회·재교육 요양보호사 15:00	23 · 씽크머니, 이화여고 Y-틴 특강 14:20	24	25	26 · 키다리학교 정기모임 13:00
28	29 위원회 인사 11:00 임원 12:00	30	31		

# “우리는 Y-틴 출신 청년지도자입니다”

청소년 시절 서울Y와 함께 꿈꾸고 성장해온 청년이

지도자로서 다시 서울Y에서 활동하는 것만큼 의미 있는 일이 있을까.

서울Y Y-틴 후배에게 힘이 되는 좋은 선배로, 또 좋은 어른으로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는

서울Y Y-틴 출신, 은하수 · 키다리학교 9명의 청년지도자를 소개한다.

## 키다리학교 키쌤

키우자 Y다운 리더, 키다리학교는 나와 주변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고 도전하는 청소년들로 구성된 동아리입니다. 청소년의 주체성, 리더십 역량 강화와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키쌤은 키다리학교 청소년에게 도움을 주는 'Key 열쇠'가 되는 지도자 되자는 의미로 키다리학교를 졸업한 청년지도자입니다.



**박희진** (20세)

고 2부터 시작한 키다리학교 활동을, 졸업 후에는 키쌤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 3 때 “내년에는 나도 키쌤을 해야지!” 목표를 세웠는데 이루게 되어 기쁩니다. 후배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주체적으로 활동하고 성장하는 키다리학교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송채연** (21세)

울력 Y-틴을 거쳐 피스톡톡, 키다리학교 키쌤 활동까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Y는 제게 도전이며 넓은 시야와 포용력 있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계기였습니다. 성장의 기회를 준 서울Y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조하진** (20세)

청소년 시절 키다리학교에서 활동하면서 청소년의 목소리에도 힘이 있고, 이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청소년'의 힘, '연대'의 힘을 깨닫게 하는 키쌤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인스타그램 @sywca\_kidari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은하수

밤하늘의 빛나는 '은하수'처럼 우리도 연대하여 힘든 세상에서 반짝반짝 빛나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동아리. 동구고등학교 울력, 이화미디어고등학교 온새미로 Y-틴 출신의 청년지도자가 이끌고 있다. 취업과 진학 사이 고민하는 Y-틴 후배들에게 따뜻한 선배이자 멘토로, 무엇보다 Y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전달하며 Y운동 청소년 활동가를 양성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민진** (24세)

울력 Y-틴으로 활동 후 키다리학교 키쌤을 거쳐 작년부터 은하수 청년지도자를 맡고 있습니다. 서울Y 중점운동 관련 다양한 활동을 하며 많은 것을 배우며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제가 해 온 정의, 평화, 생명 운동을 후배들과 함께하며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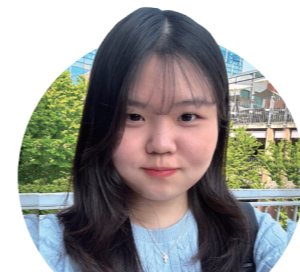
**권진영** (21세)

청소년 시절에는 온새미로에서, 지난해에는 피스톡톡과 은하수에서 바쁘게 활동하며 지냈습니다. 올해는 회장으로서는 은하수를 이끌어 가고 있는데요. Y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구성하여 선배로서 기여하고 싶습니다.



**유예림** (21세)

고등학생 시절 온새미로부터 피스톡톡, 은하수까지 서울Y와 함께하며 많은 배움과 소중한 추억을 얻었습니다. 배움과 추억은 후배들과 나누고 학창시절 저의 고민들을 떠올리며 힘들어하는 후배가 있다면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은하수 활동을 기대해주세요. 힘차게 임하겠습니다!



**김정연** (20세)

현재 대학에서 영상자율을 전공하고 있는 온새미로 출신 활동가입니다. '은하수' 활동 제안에, 무척 가치 있다고 여겨져 올해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분야에 관심 있는 후배들! 언제나 환영입니다.



**강해수** (24세)

키다리학교와 울력 Y-틴 활동을 하며 중요한 청소년 시기를 뜻깊게 보냈습니다. 청년이 된 이후에는 키다리학교 키쌤으로, 지난해부터는 은하수에서 청년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Y에서 받았던 많은 사랑과 선한 영향을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조윤나** (20세)

울력 Y-틴을 졸업하고 한 명의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북부지역 Y-틴협의회 회장으로도 활동했는데요, 이 짧은 경험이라도 후배에게 도움이 된다면 고민하는 부분들을 함께 해결해 가며 좋은 어른으로, 좋은 언니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3년 4월-2023년 5월

## 특별 후원



- 장학금 따뜻한나무장학회
- 이사위원연구모임 이복희 이희전 전영지 정수경  
조연신 최한나

## 일반 후원



강명희 강서현 고려욱 고선혜 광민규 구영숙 권혜진  
기영숙 김미자 김병호 김선자 김소희 김숙희 김옥매  
김윤희 김인복 김정순 김해정 김현경 김 형 민혜경  
박대화 박숙자 박위자 박정희 박제희 박진선 박혜리  
배은경 배정미 서해영 석성욱 송순옥 심영자 양수경  
양진화 염현경 오준호 우정현 우주훈 우훈희 월요까페  
유광주 육순연 윤혜선 이애진 이옥희 이유리 이유림  
이윤선 이은숙 이재림 이종미 이행자 이홍자 임중현  
임지영 장민경 장수자 정문옥 정석용 정수경 정승원  
정은숙 조길수 조성환 조순영 조연신 조종남 지복임  
채서은 채재호 최경자 최 불 최혜란 하태진 한정신  
홍근표

주식회사 아키엘로건축사사무소

## 재능 기부



- 최혜란(홍보출판팀 위원)
- 2023년 5·6월 회보 '예술과 여성' 칼럼 기고

## 복멘토링 후원



김민아 김상희(김한나) 김선자 김성연 김정숙 김지영  
김진숙 김혜경 남은희 박나영 박소현 박용천 박진선  
박채원 배은경 손예림 손지용 송태언 신여명 신정숙  
심영자 양진화 염현경 예정원 우영숙 월요까페 유지현  
이연배 이옥희 이윤선 이재림 이푸른하 이현미 이희정  
임재연 정나미 조민형 최동수 최 불 최정우 최한나  
최혜영 한혜영

## 월 CMS 후원



감윤우 감윤익 강경아 강경희 강금미 강남이 강동우  
강명숙 강문숙 강민아 강선경 강수미 강신범 강신봉  
강영숙 강영임 강유민 강윤정 강일훈 강주현 강창석  
강하자 강형식 경규연 고경혜 고광표 고동연 고선자  
고선혜 고선환 고성희 고은경 고은비 고은정 고은화  
고은희 고인미 고재욱 고희애 고희자 공명주 공민희  
공우재 광미숙 광민정 광지영 구다은 구미영 구범서  
구수영 구오영 구지영 권규상 권기웅 권내영 권범찬  
권부남 권성준 권순철 권예현 권우경 권은희 권정연  
권정희 권혁준 권혜진 권희원 권희정 길명경 길소연  
길인숙 길종선 김경미 홍학희 김경배 김경삼 김경선  
김경아 김경원 김경일 김경화 김경훈 김관옥 김관채  
김광수 김귀숙 김규진 김금자 김기연 김나영 김남미  
김다임 김대영 김대진 김도근 김동은 김동현 김동형  
김두희 김량순 김말녀 김명후 김문자 김문희 김미경

김미경 김미선 김미재 김미정 김미정 김미현 김민성  
김민숙 김민영 김배옥 김병호 김보라 김봉근 김봉희  
김상권 김석대 김선경 김선덕 김선리 김선미 김선영  
김선화 김선희 김성국 김성민 김성민 김성애 김성준  
김성진 김성혜 김세진 김소망 김소은 김소희 김수언  
김수연 김수연 김수진 김수현 김수호 김순경 김순남  
김순연 김순연 김순임 김순자 김순정 김승재 김시은  
김애숙 김양미 김양선 김양숙 김에스더 김연경 김연숙  
김연순 김연자 김연희 김영숙 김영식 김영심 김영옥  
김영주 김영해 김예지 한이수 김옥민 김용민 김용숙  
김용숙 김용임 김우인 김원경 김유진 김윤나 김윤종  
김윤지 김윤진 김윤희 김은경 김은경 김은민 김은애  
김은애 김은영 김은주 김은혜 김은희 김은희 김익동  
김인하 김자희 김재경 김재숙 김재신 김재영 김재윤  
김재진 김재현 김정구 김정남 김정대 김정래 김정숙  
김정순 김정애 김정연 김정옥 김정완 김정자 김정철  
김정환 김종문 김종숙 김종운 김준희 김지나 김지선  
김지수 김지수 김지연 김지연 김지연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김지혜 김지호 김지희 김 진 김진숙 김진숙  
김진아 김진향 김진호 김창섭 김철민 김철주 김철준  
김춘자 김충헌 김치백 김태식 김태연 김태준 김태준  
김태한 김통범 김한나 김해정 김행미 김항점 김현경  
김현경 김현숙 김현숙 김현영 김현일 김현정 김현정  
김현종 김현주 김현주 김현주 김형모 김형빈 김형순  
김형순 김형순 김형태 김혜경 김혜성 김혜실 김혜양  
김혜정 김홍우 김화숙 김화자 김효숙 김효은 김희성  
김희열 김희영 김희원 김희정 김희정 김희정 김희준  
김희준 나미정 나선화 남궁진 남궁혜정 남상택 남연정  
남윤경 남희숙 노남례 노미선 노승은 노정자 노혜환  
당효성 동지현 류종현 류 혁 마초희 명정신 목동진  
문경혜 문다영 문미현 문자영 문현숙 문형규 문형진  
문혜경 민경술 민동성 민선기 민수홍 민여진 민정애  
민지홍 민혜경 민혜경B 박강규 박경미 박경옥 박경호  
박경희 박경희 박경희 박경희 박광택 박구자 박근화  
박노영 박명윤 박명자 박문성 박미경 박미란 박미영  
박병주 박상건 박상수 박상정 박선미 박선주 박성호  
박성희 박소윤 박소현 박소현 박순예 박순주 박시윤

박신자 박양신 박영미 박영선 박영순 박외정 박용진  
박우표 박운용 박윤경 박윤슬 박은영 박은지 박은혜  
박인선 박자현 박정연 박정우 박정원 박정훈 박정희  
박종천 박종화 박종희 박주영 박지영 박지영 박지훈  
박 진 박진숙 박진실 박진용 박찬인 박초순 박춘필  
박춘화 박태경 박태희 박현선 박현숙 박현숙 박혜리  
박혜숙 박혜자 박혜진 박휴영 박희봉 방윤옥 방윤우  
방혜영 배광순 배민선 배상현 배수남 배영우 배윤주  
배은경 배은진 배정미 배정숙 배종우 배진영 배호성  
백명숙 백미리 백민주 백성원 백옥선 백은엽 백인성  
백정금 백 준 백향덕 백향란 백향은 변영순 변은수  
봉진영 서근배 서미화 서빛나 서영미 서욱덕 서은경  
서정연 서정희 서지영 서해원 서현옥 석상화 석성욱  
석영미 성경란 성덕화 성연석 성운수 성지윤 성지윤  
성호숙 손승혜 손승희 손지용 송경진 송길례 송상경  
송세실 송세은 송옥의 송윤주 송이라 송재임 송정민  
송중우 송창은 송태연 송하윤 송혜승 신경자 신동선  
신동원 신민자 신상용 신상우 신승우 신승주 신연식  
신용자 신정옥 신지숙 신지원 신지윤 신중섭 신현미  
신혜경 심재원 심정자 심혜영 안두환 안병수 안성포  
안성훈 안순자 안승계 안영신 안영호 안외순 안유진  
안윤희 안정국 안정희 안주희 안지혜 안진희 안진희  
안태건 안한나 안혜리 양기혁 양명옥 양세진 양수정  
양영순 양영애 양종숙 양진영 양현옥 엄수길 여명진  
염문철 염미행 염용희 염은애 염지수 염지희 오경아  
오명화 오미영 오성아 오소연 오아름 오연아 오영아  
오재준 오점희 오지영 온기석 왕정환 용윤희 우수경  
우승현 우영숙 우재하 우정희 우현주 우훈희 원경애  
원연정 원유철 원혜숙 위정선 유규진 유남석 유남실  
유덕호 유동미 유동미 유미영 유병순 유성희 유 숙  
유순희 유승연 유예목 유은경 유은희 유재미 유재현  
유정선 유정순 유정한 유주빈 유현숙 윤경례 윤경숙  
윤경진 윤광미 윤교희 윤문노 윤미경 윤미소 윤방현  
윤상은 윤 선 윤선영 윤선희 윤성섭 윤소영 윤소영  
윤순민 윤장범 윤재복 윤재숙 윤재혁 윤정향 윤정화  
윤정희 윤지영 윤지완 윤 혁 윤형석 윤혜섭 윤혜진  
윤희경 윤희숙 윤희정 이기영 이기영 이견우 이견학

# THE SOORYEHAN

이경근	이경민	이경민	이경아	이경애	이경연	이경옥	정세호	정소희	정수경	정숙향	정승원	정승원	정승혜
이경자	이경희	이계숙	이광희	이규택	이금재	이기경	정애경	정연수	정연우	정영롱	정영희	정예슬	정우연
이기쁨	이기화	이나경	이남연	이덕순	이돈행	이동숙	정원화	정유리	정유진	정은주	정은진	정은하	정재훈
이동오	이동윤	이동현	이명순	이명혜	이미숙	이미진	정정순	정정애	정정일	정종화	정종화	정준선	정지연
이민석	이민선	이민정	이민정	이범재	이병희	이복현	정지영	정지원	정지향	정진우	정진희	정창용	정혜윤
이복희	이봉주	이상명	이상원	이상윤	이상해	이상훈	정현아	정현정	정현주	정혜령	정혜수	정혜승	정혜진
이선미	이선아	이선영	이선희	이선희	이성우	이성원	정화자	제오복	조규성	조규원	조길수	조남억	조대신
이소진	이수범	이수빈	이수연	이수연	이수영	이수윤	조명희	조미선	조성미	조성미	조성진	조성채	조성호
이수진	이수영	이순옥	이순천	이슬기	이승민	이승연	조성환	조세환	조연신	조오영	조용선	조윤신	조재상
이승한	이아름	이아영	이애경	이애리	이연아	이영미	조점순	조정현	조정현	조정훈	조준하	조중희	조진영
이영미	이영미	이영석	이영숙	이영자	이영진	이영희	조진희	조혜성	조혜전	조홍신	주동일	주명애	주민숙
이예은	이옥경	이용숙	이용호	이원애	이유리	이유림	주소은	주영숙	주우철	주지성	주형로	지경표	지미화
이윤선	이윤정	이은경	이은경	이은경	이은경	이은빈	지송분	지영	지영찬	지인	진영선	차경희	차미연
이은숙	이은아	이은아	이은영	이은영	이은이	이은자	차지혜	채송화	채송화	채재호	채정림	채지은	최광기
이은정	이은정	이은정	이은정	이은주	이은주	이은주	최기은	최명민	최명진	최명혜	최명희	최문정	최민호
이은혜	이은희	이은희	이재건	이재경	이재옥	이재옥	최 봄	최새롬	최서래	최선미	최수희B	최순자	최순태
이재정	이재천	이재혁	이정규	이정석	이정석	이정수	최승미	최승민	최승아	최신지	최영실	최영아	최영주
이정수	이정숙	이정아	이정은	이정인	이정임	이정한	최용운	최운영	최유나	최유정	최윤서	최윤주	최윤희
이정현	이정환	이정희	이종규	이종미	이종석	이종욱	최윤호	최은성	최은주	최정호	최정희	최종대	최종인
이주연	이주형	이주형	이준혜	이증자	이지선	이지영	최지영	최지영	최지은	최지희	최현경	최혜원	최호길
이지현	이지현	이진규	이진아	이진영	이창희	이채진	최희숙	탁순희	탁정미	하령자	하재희	하정미	하태성
이택완	이푸른하	이한기	이한성	이행남	이행자	이향숙	하태진	한가원	한경희	한다정	한민희	한성우	한숙희
이현국	이현순	이현심	이현아	이현옥	이형숙	이혜영	한승연	한승연	한승희	한예성	한용순	한윤경	한인선
이혜원	이혜주	이혜진	이화정	이희남	이희전	임경희	한 정	한정신	한정원	한정화	한지현	한진숙	한현식
임동숙	임등자	임미령	임미영	임병일	임성은	임성준	한혜정	함봉진	항기나무	허경희	허선영	허영록	허영숙
임양수	임완철	임재연	임재영	임정자	임정화	임정훈	허지웅	허철영	허혜정	현명금	현은순	홍경화	홍선미
임준호	임중현	임지은	임지현	임현주	임호환	임희진	홍수연	홍승연	홍윤서	홍은미	홍정남	홍정혜	홍주실
장경화	장금환	장길례	장선희	장수용	장순복	장영랑	홍현표	홍호성	홍희정	황경희	황명숙	황보림	황보영
장용익	장윤정	장주연	장철승	장현주	장혜영	장 훈	황선미	황선영	황순분	황어진	황왕연	황용숙	황용하
전덕기	전민구	전상숙	전소영	전영삼	전유오	전윤숙	황윤희	황은경	황주혜	황지희			
전은경	전인옥	전재수	전행욱	전홍신	정경문	정경미	(주)사공디자인	세무회계사무소지성	씨에라여성의원				
정경옥	정경원	정동신	정명숙	정문옥	정미선	정민선	양재2동어린이집	주식회사 제이글로리	중앙이앤씨				
정상미	정새와	정서진	정선덕	정선주	정선화	정선희	콤마,와인	파티인테이블					



진보된 안티-히든에이징  
더 수려한 더 블랙세럼

후원 계좌

농협 317-2021-0710-91

(예금주 : 사단법인서울와이더블유씨에이)

문의 02-3705-6041

후원금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성



# 조명숙

기청공민학교 역대교장  
(1918-?)

1918년 서울에서 출생한 조명숙 선생은  
배화여고를 졸업하고  
김포통신소학교, 배화소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1943년 당시 같은 교회에 다니던  
장정심 간사의 소개로  
본회 야간 기청공민학교 교사를 겸하게 된다.

광복 후에도 도시락을 두 개씩 들고 다니며  
낮에는 종로국민학교에서, 밤에는 본회 공민학교에서  
불우한 소녀들의 친구이자 교사, 어머니가 되어 주었다.  
1953년 10월부터 전임으로 본회에서 일하게 된 후에는  
회우부, 사업부, 식당부 간사로 활동하다  
1959년에는 공민학교 교장을 맡아 1982년까지 헌신했다.

동료들로부터 'Y회보 1호'라고 불릴 만큼  
수십 년간 충성하며 수많은 제자를 길러낸 선생은  
1955년 서울시에서 광복 10주년 기념 교육공로상을 받았다.  
1972년에는 한국YWCA 창립 50주년 기념 공로상,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윗줄 맨오른쪽이 조명숙 선생.  
한국YWCA 창립 50주년 기념 공로상 수상자들로  
김필례(아랫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  
박에스터(윗줄 왼쪽에서 세 번째) 선생도 보인다



조명숙 교장 앞에서 기청공민학교 졸업생이 답사를 읽고 있다

(사)서울YWCA www.seoulywca.or.kr 대표전화 3705-6000

지역번호 02

소비자정보센터 1372, 3705-6060  
스포츠센터 수영·필라테스·피트니스 3705-6030  
돌봄과살림센터 가사돌봄비·산후조리사·아기돌봄비 3705-6013~4  
간병사 3705-6071~2  
재가장기요양기관 855-8826

봉천종합사회복지관 www.bongchuny.or.kr 870-4400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www.ywcajob.or.kr 858-4514~5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www.job365.or.kr 951-0187~8  
강남청소년수련관 www.gangnamyc.or.kr 544-9725~6  
누리봄 www.bongchuny.or.kr 888-7983